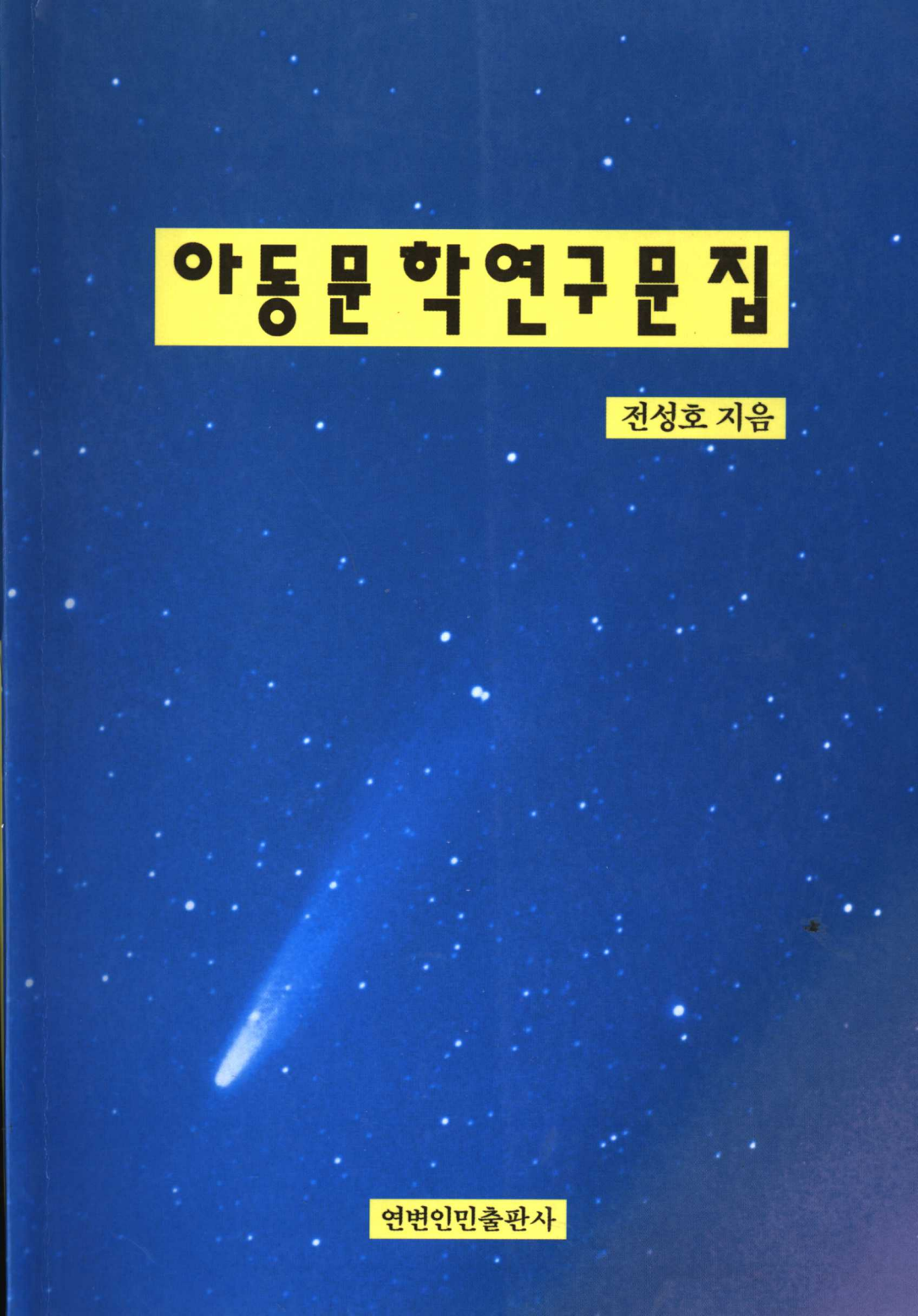
아동문학연구문집

전성호 지음



연변인민출판사

아동문학연구문집

전성호 지음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방복순
책임교정: 리영숙

图书在版编目(C I P)数据

儿童文学研究文集/全盛镐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6. 5 ISBN 7-80698-699-5

Ⅰ. 儿... Ⅱ. 全... Ⅲ. 朝鲜族—儿童文学—文学研究—中国—文集—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Ⅳ. 1207.8-53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6)第047229号

儿童文学研究文集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印刷: 图们市日升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8.125 字数: 220千字
标准书号: ISBN 7-80698-699-5 / I · 97 (民文)
版次: 2006年5月第1版 2006年5月第1次印刷
印数: 1—1000册 定价: 15.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문집을 펴내면서□

전문 아동문학을 연구하거나 평론하는 사람이 아니면서도 근래에 이르러 연변아동문학연구기구의 활동에 참가하면서 필요에 따라 가끔씩 쓴 글들을 한데 모아놓으니 부족하나마 얇은 한권의 책으로 묶어질만큼 분량이 되였다. 이러한 글들에서 부분적으로는 한국의 《시와사람》출판사의 도움으로 아동문학연구소에서 발간한 《중국조선족아동문학대계》 제1집, 제2집, 제3집에 나갔고 더러는 《문학과예술》지에 나간 외 많은 글들은 그저 작품연구회거나 학술토론회에서 구두로만 발표되고는 원고상태로 책장 한구석에 적치되여있어 아쉬움이 많았다. 연변문단에 전문 아동문학연구거나 아동문학평론을 실을만한 지면이 없는 상황이니 나로서는 더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던차 이번에 한중서로사랑협회에서 나에게 이 《아동문학연구문집》을 묶을 기회를 주어 대단히 감사한 마음이다.

문학연구란 일종의 문학비평행위로서 무엇보다도 선차적으로 참다운 독서를 전제로 한다. 이 독서의 공간이란 바로 작자의 의식과 독자의 의식이 서로 만나게 되는 장(場)이다. 이 경우 독자는 작자와 작품앞에서 절대로 오만할수 없다. 오직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또 그 기초에서 그것을 리해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적절한 방법론으로 투시하면서 연구를 해야 한다. 아동문학이라 하여 다를것이 없다. 오히려 평자에게는 아이들의 시각을 념두에 두면서 작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과제가 더 나서고있다.

□

본 문집은 이러한 시점에서 시도되였다. 우선 작자들의 작품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 아이들의 시각에 초점을 맞춘다는것을 념두에 두면서 연구에 림하였고 될수록 그 작품들에 합당한 비평방법론을 도입하여 투시하노라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내가 전문 아동문학만을 연구하는 평론가가 아니고 또 동심에 흠뻑 물젖어 사는 아동문학작가가 아니여서 나의 이 연구에 적지 않은 무리가 빚어졌을줄로 짐작한다. 특히 우리 중국조선족문단에는 전문 아동문학창작만을 하는 많은 우수한 작가들이 있고 작품들도 많지만 나의 정력의 한계로 그 작가들의 작품들을 모두 섭렵하지 못했고 또 동화문학에 대하여서는 전혀 손을 대지 못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게 되면 이를 미봉하려는 생각을 가지고있다.

끝으로 이 문집이 출간되도록 백방으로 추천하여주신 관계부문일군들과 또 이 문집의 출간을 위하여 아낌없는 후원을 주신 한중서로사랑협회에 감사를 드린다. 더불어 이 문집에 글들을 써주신 중국조선족소년보사 최청길부사장님, 한중서로사랑협회 리종태회장님, 한중서로사랑협회 김장호사무국장님, 한중서로사랑협회 김현득진흥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그리고 이 문집의 출판을 맡아주신 출판사에도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2006년 5월 연길에서

전 성 호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전성호(全盛镐)

1942년 8월 화룡시 출생.
연변대학 조문학부 졸업.
강원대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조선사회과학원 박사심의 통과(문학박사).
원 연변사회과학원 문학예술연구소 연구원.
현재 연변대학 조선문학연구소 겸직 연구원.

주요 저서:
《일제하중국조선인소설연구》.
《중국조선족문학예술사연구》.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발전한 혁명문학과 그 영향밑에 간도일대에서 창조된 진보문학》 등.

수상정황:
각급 우수론문상 우수저작상 10여차 수상

최청길
중국조선족소년보사 부사장

리종태
교육철학박사
한중서로사랑협회 대표회장

김장호
한중서로사랑협회 사무국장

김현득
한중서로사랑협회 진흥위원장

차 례

문집을 펴내면서 / **저자**

작가론적연구

방정환과 그의 아동문학 / 1
소녀의 형상으로부터 더듬는 심련수의 심성고찰 / 23
우리 배달문학의 또 하나의 별
—채택룡선생님을 그리면서 / 35
김례삼론—동요동시를 중심으로 / 43
김득만론—부지런히 동심을 파헤친 시인 / 57

아동소설연구

김영소설연구 / 91
1997, 1998년 아동소설의 류형학적고찰 / 109
전쟁관련중,장편아동소설연구 / 132
소설집《사춘기의 고민》을 두고 / 152

동요동시연구

자연과 꿈의 서정 —김현순의 동시를 두고 / 163
한석윤동시의 이미저리 분석 / 175
김철호동시집《꽃씨의 이야기》소감 / 184
동시집《물수제비》읽기 —전개양상에 대한 고찰 / 197
우리 동시의 흰빛이미지 / 215

기타연구

아동문학연구에서의 김만석의 시각고찰
—저서《아동문학연구》를 중심으로 / 225
수필《비바람속에 꽃은 피여나고》를 두고 / 240

모시는 글

문집출간에 부쳐……최청길 / 245
발간사…… 리종태 / 247
격려사…… 김장호 / 250
축 사 ……김현득 / 252

작가론적 연구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방정환과 그의 아동문학

Ⅰ. 서론

소파 방정환(小波 方正煥: 1899. 11. 9 - 1931. 7. 23)은 우리 배달민족에 있어서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낱말을 만들어내고 우리 민족 어린이들을 위하여 분투한 어린이운동가이다. 그는 10세의 어린 나이에 벌써 《소년립지회》를 조직하여 활약하였고 19세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린이운동에 전념하였으며 1919년에는 《3.1》운동을 보도한 지하신문 호외판 《조선독립신문》을 등사판으로 박아 배부하다가 일경에게 피검되여 1주일간 수용, 고문을 당하기도 한 사람이다. 그리고 일본류학기간에는 어린이들의 인권해방운동을 위하여 《색동회》를 조직, 지도하였고 또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어린이들의 인격해방과 그 보장을 위하여 강연활동도 하고 여러가지 아동을 위한 활동을 하다가 33세를 일기로 너무도 일찍 별세한 사람이다.

이처럼 방정환은 어린이운동가였을뿐만아니라 또 우리

민족 어린이들의 계몽을 위하여 직접 적지 않은 글도 썼다. 그의 문집[1]에 수록된 글만 살펴보아도 거기에는 소론 16편, 수필 30편, 교양문 42편, 동화 25편, 동극 1편, 동요 19수, 소설 13편(그중 아동소설 9편) 등이 있고 외국의 동화거나 외국의 소설을 변역한것이 18편이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소파 방정환을 일러 우리 민족 계몽기의 아동문학가라고도 칭하게 된다.

물론 방정환에게 있어서 작품창작활동은 차요한것이고 어린이들의 인격해방을 위하여 벌린 일련의 운동들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시대상황에 근거하여 방정환이 벌린 운동의 성격을 간단히 구명해봄과 더불어 주로 그의 동요작품과 소설작품들을 둘러싸고 력사 및 사회학적각도 그리고 민족심리학적각도에서 고찰해본다. 그것은 방정환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그의 작품연구도 빠뜨릴수 없는 하나의 부분으로 되기때문이다.

Ⅱ. 시대상황과 방정환

주지의 사실이지만 방정환이 출생하여 유년기, 소년기를 걸쳐 성인으로 활동하였던 19세기말과 20세기초는 바로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단계로 종국적으로 이행하던 시기로서 렬강들은 《아직 분할되지 아니한 마지막 지역을 략탈하기 위하여 혹은 이미 분할된 땅쪼각의 재분할을 위한 열광적투쟁에서 락후될가 두려워하면서 어떠한것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될 수 있는대로 더 많은 령토를 점령하려고 애를 썼》[2]던 때이

1) 소파 방정환선생기념사업회, 《소파 방정환문집》. 하한출판사, 1997. 12.

2) 《레닌전집》 제4판 22권, 249페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

다. 조선반도에는 일본, 미국, 로씨야, 프랑스, 독일 등 제국주의강국들이 들어와 각종 권력을 찬탈하여 《조선의 주요한 자원과 동맥은 일본침략자들을 위시한 구미렬강들에게 점탈되고 조선은 빈 껍질만 남》[3]게 되였다. 특히 로씨야와 일본은 1904년과 1905년사이에 조선에서의 자기네들의 더욱 많은 실권쟁탈을 위하여 조선반도를 전쟁터로 삼고 치렬한 전쟁까지 일으켰다. 이 전쟁에서 로씨야가 패전하게 되자 일본은 조선에 대한 예속화를 더욱 구체화해나갔다. 1905년 11월 17일에는 조선과 일본사이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였고 1906년에는 일본정부에서 조선반도에 통감부를 설치하게 되였으며 따라서 조선정부에서의 모든 결책은 반드시 통감부의 비준을 받아야 했다. 이리하여 조선반도는 실질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고말았다. 이에 만족하지 않은 일본은 조선반도를 완전히 삼키기 위하여 1907년 7월 24일에는 조선정부를 핍박하여 《정미7조약》을 체결하였고 8월 1일에는 조선군대를 해산시켰으며 1910년 8월 22일에는 끝내 《한일합방》을 선포하게까지 되였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민족민중들은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여 끊임없는 항쟁을 벌려왔다. 이러한 항쟁은 주로 두가지 방면으로 전개되였는데 윤병상의 말에 따르면 《1905년의 을사조약 전후로부터 1919년의 3.1운동 발발에 이르는 민족운동 내지 독립운동을 대별하면 하나는 의병의 항일전이고 다른 하나는 애국계몽운동이라 할수 있》[4]는것이다.

력사연구소, 《조선통사(하)》(사회과학출판사, 1958. 9. 제1판), 120페지. 재인용.

3) 앞의 통사, 122페지.

4) 윤병상 등, 《한민족의 독립운동사》. 한국민족운동사연구위원회, 1990. 8. 제1판. 15페지.

먼저 의병항쟁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등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배일의식을 가지고있는 농민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수백명, 수천명의 대부대 작전을 펼쳤다. 그중에서도 충남 홍주성을 점령하여 일본군과 전투를 벌렸던 민종식(閔宗植)의 의병부대, 전북 태인에서 일어나 순창에서 해산한 최익현(崔益鉉)과 림병찬(林炳瓚)의 의병부대, 경북에서 기세를 올린 신돌석(申乭石)의 의병부대, 추풍령일대에서 활동한 로응규(盧應奎)의 의병부대 등의 항전이 영향력이 컸다. 이러한 의병부대의 활동은 남쪽으로는 경상도와 전라도, 북쪽으로는 함경도와 평안도에까지 파급되여 대규모적인 전국의병의 항일전을 유발시키는 계기가 되였다. 그후 이러한 의병부대는 국내에서 더 활동할수 없게 되자 그 활동의 근거지를 국외에 옮겨 중국의 동북지방, 로씨야의 연해주지방에 가서 항일활동을 하였다.

다음 애국계몽문화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급속히 장성 발전하는 의병투쟁에 발맞추어 애국애족의 지식인들은 대중적인 계몽사상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독립자주, 국권회복, 자국부강, 문명개화, 내수외학(內修外學) 등을 투쟁강령으로 내세웠다. 그들은 이러한 문화계몽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우선 여러가지 단체들을 조직하였는데 1905년 5월에 결성된 《헌정연구회》(憲政硏究會)를 비롯하여 1906년 4월에는 장지연(張志淵), 심선성(沈宣性) 등을 중심으로《대한자강회》(大韓自强會)가 창립되였고 10월에는 안창호(安昌浩), 리갑(李甲) 등을 중심으로 《서우학회》(西友學會)가 조직되였으며 11월에는 리동휘(李東輝), 리준(李儁) 등에 의하여 《한북흥학회》(漢北興學會)가 조직되였다. 이러한 조직들은 1908년 1월에 합쳐져 《서북학회》(西北學會)로 되였다.

이외에도 경상도에 《교남학회》(嶠南學會), 전라도에 《호남학회》(湖南學會), 강원도에 《관동학회》(關東學會) 등 단체들이 지방별로 조직되였다.[5] 이러한 학회들은 모두 신문화운동의 단체들로 출발하였으나 실질상에 있어서는 반일애국운동의 정치단체들이였던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애국문화계몽활동의 일환으로 출판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여 《한성순보》(1883), 《한성주보》(1886)가 발간된데 이어 《독립신문》(1896), 《제국신문》(1898), 《대한매일신보》(1905), 《만세보》(1906) 등 신문들과 《조양보》(1906), 《야뢰》(1908), 《소년한반도》(1908), 《소년》(1908) 등 종합잡지, 《서우》(1906), 《대한협회월보》(1907), 《대한자강회월보》(1906) 등 학회잡지 그리고 《가정잡지》(1908) 등 계몽잡지들이 출현하였다.[6] 애국애족의 지식인들은 이러한 출판물들을 통하여 민족을 계몽시키기 위한 글들을 발표하였다. 일제에게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이러한 작품활동과 출판활동은 그대로 자기의 말과 마음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항쟁이였다.

그리고 상술한 의병활동과 애국문화계몽활동의 집대성으로 1919년 3월 1일에는 조선반도에서 성세호대한 《3.1》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소파 방정환은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운동에 관심을 가졌다가 19세부터는 어린이운동에 전념하여 류광렬(柳光烈), 리중각(李重珏), 리복원(李馥遠) 등과 함께 《청년구락부》를 조직하여 회보를 발간하였고 1919년의 《3.1》만세시위때에는 독립선언문을 인쇄하여 돌리다가 체포되기도 하였으며 그후 어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 력사연구소, 앞의 통사. 169페지 참조.

6) 김병민, 《조선문학사》. 연변대학출판사, 1994. 10. 제1판. 3페지 참조.

린이날을 제정하였다거나 일본에 가서 《색동회》를 조직하여 뜻이 맞는 동지들을 규합하고 또 아동을 위한 작품을 쓴다거나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어린이들과 그 부모들에게 어린이인격선동활동을 하는 등 많은 일들을 하였는데 어린이들을 위하여 벌린 방정환의 이와 같은 일련의 활동들도 따져보면 그 성격이 바로 우리 민족의 상술한 애국문화계몽활동과 궤를 같이하는 애국애족의 항쟁운동이였던것이다. 그리하여 김대중은 방정환을 일러 어린이운동의 선구자일뿐만아니라 《어린이운동의 차원을 넘어서 나라 잃은 백성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고 민족혼을 일깨워주려는 해방운동이자 애국애족운동의 실천가》[7]라고 하였다.

1920년대의 조선반도 아동문학에는 박영종을 위시한 《천사주의》파와 박세영을 위시한 《프로아동문학》파가 있었다. 이른바 《천사주의》아동문학은 세상이 암흑하고 생활이 고통스러운데 아이들에게 비애를 안겨줄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꿈과 환상을 안겨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을 도피한 순수문학을 주장하였고 《프로아동문학》은 문학의 계급성을 강조하면서 무산아동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반영하고 또 이런 생활을 반대하여 싸울것을 고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방정환을 대표로 하는 부분적인 사람들은 《애상주의문학》을 주장하였는데 헐벗고 굶주리는 아이들속에 들어가 동심을 발굴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울고불고할것을 요구하였다. 즉 지금의 아동문학은 현실도피의 문학으로 되지도 말고 투쟁의 문학으로 되지도 말며 현실을 직시하여 현실의 심성을 담는 문학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이다. 방정환의 문학세계는 바로 그의 이와 같은 정신을 담으

---

7) 김대중, 《소파! 어린이들의 영원한 친구》. 소파 방정환선생기념사업회, 앞의 책의 헌사.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